



대한민국 선진화 지수 28위, 아직 갈 길 멀다

한반도선진화재단
홍보교육팀장 김소열

대한민국 선진화 지수 28위, 아직 갈 길 멀다

한반도선진화재단

홍보교육팀장 김소열

우리나라는 선진국인가? 물으면 사람들은 쉽게 답하지 못한다. 선진국 같은데 어딘가에 미심쩍은 면이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휴대폰 보급률은 물론 선박, 자동차, 조선, 가전 등의 산업과 경제적 측면을 보면 분명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인데 정치의식이나 법질서, 공동체 의식, 국제공헌 등을 보면 선진국이라고 보기에는 거리가 있다. 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공헌에 걸쳐서 공히 균형된 발전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그 대답을 한반도선진화재단이 발표한 2013 국가선진화지수에서 찾을 수 있다. 이번 발표한 2013 국가선진화지수는 대한민국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한 눈에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21세기 오늘의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5위권으로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중진국의 선두주자다. 세계 각국의 개발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으로부터도 세계 속 대한민국의 인지도와 동경심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 오히려 현장에 나가 있는 한국인이 외국인들 보다 K-pop과 한국 드라마를 알지 못해 곤란을 겪었던 경우가 있을 정도라고 한다.

선진화 열기 식었지만, ‘선진국가’ 국가전략은 여전한 과제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과제를 뒤로 한 채 삼페인을 터트리는데 몰두하고 있는지 우려된다. 성장과 분배는 함께 굴러야 할 두 수레바퀴다. 소득불평등 현상의 심화는 오히려 성장을 발목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무시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런 점에서 복지를 통한 사회 균형을 추구하는 일에 관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우리사회가 복지를 내세운 분배에만 지나치게 경도돼 있지는 않은지 경계심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세계가 총성 없는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는 곧 퇴보를 의미한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세계 1등 국가, ‘선진 국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우선적인 국가전략이 돼야 함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사회 내 선진화의 열기(熱氣)가 사그라진 게 엄연한 현실이다. 선진화에 대한 일종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2006년 9월 출범한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우리 사회에 ‘선진화’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진 바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대한민국의 내일의 목표를 ‘선진화’로 제시한 것이다. 2008년 시작한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 원년(元年)을 세우겠다!’며 호응했지만, 그 결과는 그다지 신통치 않았다. 선진화에 대한 명확한 방향과 그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개혁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했음에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선진화 성공을 어느 누구보다 기대했고, 이를 위해 연구결과를 제공했던 재단으로서 실망감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선진화 수준을 점검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나라보다 순위가 ‘높다’ ‘낮다’를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부족한 지점이 어디이고, 우리가 더 자신을 갖고 추진할 부분은 어디인지를 우리 스스로 파악하고 실행하는 것은 선진화 지수를 개발하고 발표해 온

재단의 분명한 입장이다.

아시아 네 마리 용(龍)-NICs 4개국 중 대한민국 4위 성적표

이번 2013년 선진화 지수 종합순위 성적표는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OECD 선진국 30개국과 선발개도국(NICs) 10개국 등 4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한국은 28위를 기록했다. 재단은 2008년부터 세계 여러 기관들의 경제·정치·사회·문화·국제화 등 5개 분야에 관한 설문·통계 등 객관적 지표를 종합해 지수를 발표해 왔다. 또 이를 분석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전략도 함께 제시해 왔다.

조사 첫 해인 2008년 32위를 차지하고, 2009년과 2010년에 30위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할 때, 세 계단 오른 올해 우리나라 성적에 혹자는 나쁘지 않은 결과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오히려 유럽, 미주 등 선진국들과 벌인 치열한 각축에서 선전했다고 만족할 만한 성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번 성적표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가 이번 결과에 안도하거나 낙관하긴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직전의 조사와 비교해 3위에 오를 수 있도록 상승을 견인했던 것은 10계단 오른 문화 분야였다. 정치 분야도 지난 조사와 비교해 한 단계 상승했다. 결국 문화 분야가 하락한 경제(2단계↓), 사회(3단계↓), 국제화(1단계↓) 분야의 부족을 메웠다고 할 수 있다. 특히 3단계 하락한 사회에서 ▲법질서 준수는 28위 ▲부패인지수 29위 ▲윤리경영 35위 등을 차지해 ‘법질서’ 부문에서 약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대한민국과 함께 아시아의 네 마리 용(龍)이라 불리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이번 조사에서 각각 15위, 22위, 27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이 NICs 4개국 중 제일 낮은 성적인 것이다. 특히 4개국들의 선진화 구조를 10개의 중분류로 비교해 볼 때 보다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과 ‘새로운 문화창출’ 항목이 선진화를 선도하는 형태인 반면, 나머지 국가들은 다양한 분야가 골고루 분포돼 있다. 이는 한국이 다른 NICs에 비해 강점이 적고, 약점이 더 많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완해야 할 약점 과제가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이번 선진화지수 발표와 함께 재단의 청년한선기자단에서도 선진화에 대한 20대 인식조사결과를 내놓았다. 20대 1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선진화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38%가 선진화를 스마트폰, IT기술, 기술혁신 등 ‘기술발달’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정치’라고 답한 것은 4%에 불과했다. 경제와 기술발전이 선진화의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이나 우리 사회 20대들이 선진화의 척도를 ‘기술발달’이라는 하나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더불어 청년들에게 선진화에 대한 인식 확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러주는 대목이다. 청년들이 ‘정치’를 가장 선진화 대상으로 여기지 않은 점 역시 20대들의 정치 이탈 현상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20대들의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은 대한민국 미래 선진화의 중요 요소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 선진화 불씨 살려 국민통합·국가발전 동력 삼아야

선진화의 시대적 요구는 여전히 우리 현실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이번 2013년 선진화 지수 발표와 20대의 선진화 인식 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 그동안 숨 가쁘게 달려 왔던 대한민국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선진 일등국가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에서 박근혜 정부도 비껴 설 수는 없다. 선진화는 정부의 성격에 따라 취하고, 버릴 수 있는 성격

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선진화에 대한 불씨를 살리고 개혁을 이뤄나갈 때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동력을 만들 수 있다. 나아가 이를 추동 삼아 선진통일시대의 열쇠를 짚 수 있다는 점 역시 알아야 한다. 다시 한 번 이번 재단의 발표가 우리사회에 다시 일깨우고 선진화 개혁의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